

중립 (유지)

강석오 선임연구원
☐ sokang@shinhan.com

고준혁 연구원
☐ jhko0330@shinhan.com

신한생각 소비 둔화, 콘텐츠 경쟁력 부재에 온라인 광고 기업 부정적

광고 시장 침체로 인해 9월 광고경기전망지수는 추석 효과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을 기록. 소비는 둔화되고 플랫폼간 경쟁 강도는 높아짐에 따라 하반기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광고 매출 성장은 쉽지 않음 전망

계절적 효과도 약해진 9월 광고경기전망지수(KAI)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9월 광고경기전망지수(KAI)를 102.8pt로 발표. 온라인 채널은 104.3pt로 종합 지수 소폭 상회. 하지만 9월은 추석이 있어 계절성으로 인해 매년 100pt를 상회해왔고, 올해는 그 폭이 예년 대비 축소되어 여전히 부정적인 분위기임을 확인. 추석이 있는 매년 9월은 대부분 110pt(최고 119.6pt)를 넘었지만, 침체 이후 2022년 102.9pt, 2023년 104.1pt, 2024년 102.8pt를 기록해 그나마 있던 계절성까지 열어짐. 지난 해 동월 대비 전망치는 97.2pt로 광고비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한국디지털광고협회에 따르면 6월과 7월 PC 채널 광고비도 각각 -13.6%, -11.7% 축소되었을 것으로 추정. 제한된 시장 규모에서 온라인 커머스(알리, 테무 등), 콘텐츠(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경쟁 강도가 높아져 개별 기업들의 실적은 더 부정적인 상황.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의 인플루언서 기반 콘텐츠 플랫폼들이 광고 제거나 신규 광고 상품을 내놓고 그 효율까지 높아 국내 토종 플랫폼들의 성장 둔화는 지속될 것. 국내 부동산 거래량 또한 2023년 상반기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규모 자체가 예년 대비 적어 부동산 광고비 반등을 통한 산업 회복도 어려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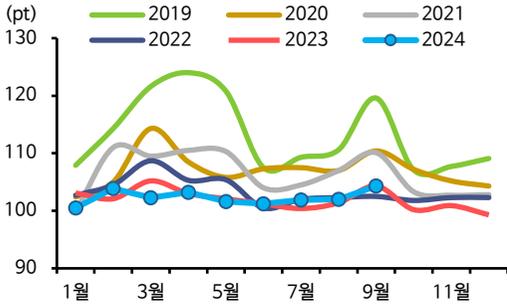
광고 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는 소비 둔화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7월 인터넷 서비스업 지수(2020년=100pt)는 162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4.4% 성장률을 기록. 2022년 10월 이전에 대부분 두 자릿대 성장률을 보였던 인터넷 서비스업 지수는 2024년 1월을 제외하고 모두 한 자릿대 성장을 기록 중. 또한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20조원으로 전년 대비 +5.4% 성장했고, 이는 2022년 이후 최저 수준. 소비 둔화에 커머스 경쟁 심화로 국내 기업들의 거래액은 더욱 정체될 것

결론: 하반기 국내 인터넷 기업, 쉽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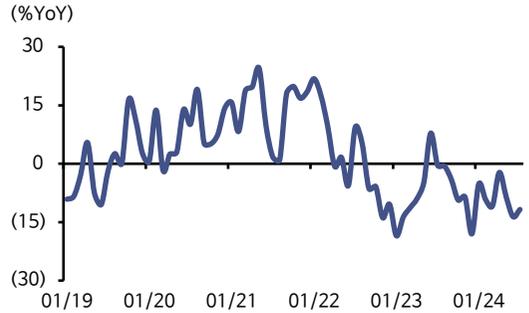
소비 증가를 통해 광고 지출이 커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기도, 콘텐츠 경쟁력으로 트래픽을 성장시켜 광고 점유율을 높이기도 어려운 상황. 커머스는 중국 기업들의 진입으로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인플루언서 기반의 콘텐츠 트렌드에 대응하지 못해 트래픽도 부정적임에 따라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경쟁력이 해외 기업 대비 크게 낮아졌다고 판단. 산업 성장 둔화와 기업 경쟁력 하락에 따른 멀티플 디스카운트 지속 전망

광고경기전망지수(KA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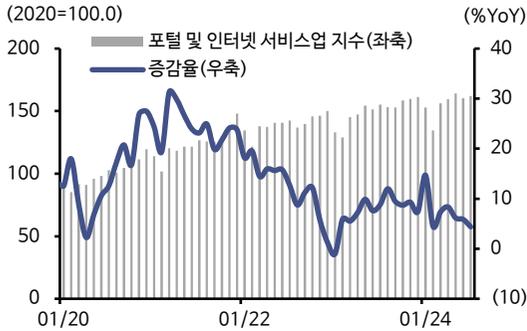
자료: KOBACO, 신한투자증권

온라인 DA 광고비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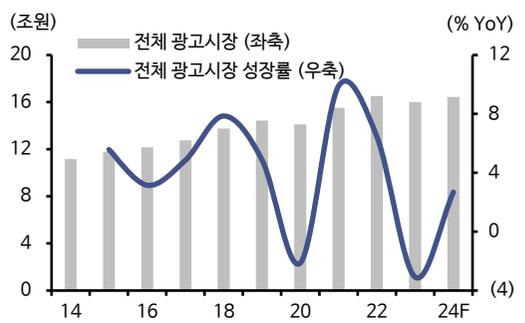
자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신한투자증권

인터넷 서비스업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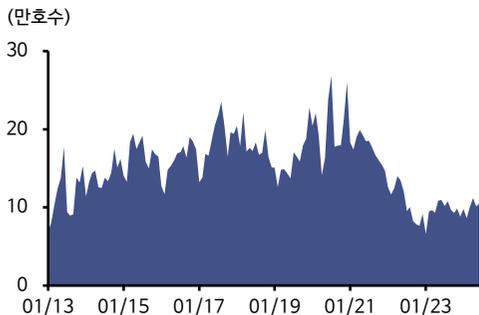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신한투자증권

한국 광고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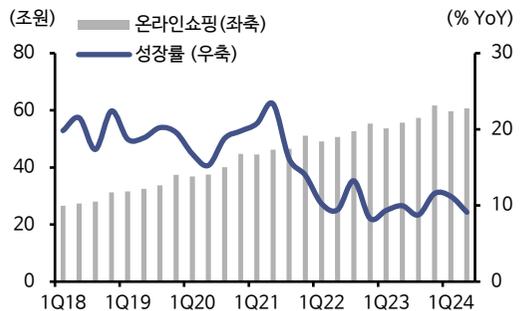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OBACO, 신한투자증권

한국 부동산 거래량 추이



자료: 통계청, 신한투자증권

분기별 온라인 쇼핑 규모 및 성장률 추이



자료: 통계청,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석오, 고준혁)
-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 자료 공표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의 주식 등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

종목	섹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이상 ◆ Trading BUY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10% ◆ 중립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10% ~ -20% ◆ 축소 : 향후 6개월 수익률이 -2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중확대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매수 비중이 높을 경우 ◆ 중립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중립적일 경우 ◆ 축소 : 업종내 커버리지 업체들의 투자의견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Reduce가 우세한 경우

신한투자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24년 9월 1일 기준)

매수 (매수)	94.21%	Trading BUY (중립)	3.86%	중립 (중립)	1.93%	축소 (매도)	0.00%
---------	--------	------------------	-------	---------	-------	---------	-------